

국립중앙도서관 개관
75주년 기념 온라인특별전

도서관, 시대를 걷다

참여방법

도서관누리집(www.nl.go.kr)



디지털컬렉션



전시컬렉션



「도서관, 시대를 걷다」



문화체육관광부
국립중앙도서관



국립중앙도서관 개관 75주년 기념 온라인특별전

전시를 열며

올해는 대한민국 국가문헌의 보고이자 지식정보의 요람인 국립중앙도서관이 개관한지 75주년이 되는 해이다. 1945년 광복과 더불어 조선총독부도서관의 전권을 위임받고 문헌을 수호하기 위한 각고의 노력과 고투 끝에 두 달 여 만인 10월 15일, 국립도서관으로 정식 개관하게 되었다.

75년의 짧은 기간 동안 대한민국이 고도의 경제성장 and 문화강국을 이루어냈듯, 국립중앙도서관도 국가대표도서관으로서 국가지식정보의 전송과 국내 도서관계의 발전을 위해 부단한 노력을 해왔다. 이번 전시는 지난 75년 동안 우리 도서관이 걸어온 길과 발자취를 살펴보고, 미래 시대를 향한 도약을 다짐하기 위한 자리이다.

제1부 ‘도서관의 보물창고’에서는 도서관이 소장하고 있는 국보와 보물, 지정문화재를 소개한다. 국립중앙도서관은 국내 최대 고문헌 소장처로서 약 3천여 권에 달하는 귀중본을 소장하고 있다. 이번 전시에서는 도서관이 소장하고 있는 19종의 주요문화재를 한자리에서 감상할 수 있도록 하였다. 제2부 ‘시대별 도서관사(史)와 출판사(史)’에서는 도서관의 전신인 조선총독부도서관 시기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도서관의 역사와 시대별 대표적 출판물을 소개한다. 시대별 출판물의 특징과 도서관의 발자취를 한눈에 살펴볼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제3부 ‘도서관의 도서관, 국가대표도서관’에서는 그간 국가대표도서관으로서 도서관이 발행했던 발간자료를 중심으로 구성하였다. 국립중앙도서관의 발간자료 중 간행물 「도서관」의 변천사와 다양한 발간자료들을 특징별로 선별하여 소개한다. 특히 이번 전시에서는 최근에 발굴된 국립도서관 초기문서들이 최초로 공개된다.

과거와 현재, 미래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듯, 도서관의 정체성도 당대의 사회상과 공존하며 발전적 변화를 거듭해 왔다. 도서관은 시대에 무한한 가능성을 제공하고 보존하는 공간이며, 국립중앙도서관은 대한민국 지식정보의 요람으로서 시대적 사명을 다하고 있다.



“우리들의 안중에는 명예도 없고 지위도 없고 또는 안락도 없다.
다만 좋은 문헌을 수집보존해서 일반인사에게 이용시키는 것을
최상의 희열로 삼고 있다.”

- 초대 국립도서관장 이재육 -



넓은 지식을 향한 향해

국립중앙도서관 발자취

[연표]

1945 10월 15일

「국립도서관」으로 개관(서울 중구 소공동)

- 직 원: 34명
- 장 서: 284,457
- 이용자: 13,300명



1988 5월 28일

본관 신축 개관(서울 서초구 반포동)

- 직 원: 239명
- 장 서: 1,453,549
- 이용자: 1,226,364명



1974 12월 2일

본관 이전(서울 중구 소공동에서 남산으로)

- 직 원: 156명
- 장 서: 576,312
- 이용자: 333,582명

2006 6월 28일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개관
(서울 강남구 역삼동)

- 직 원: 252명
- 장 서: 6,134,720
- 이용자: 618,263명

2009 5월 25일
디지털도서관 개관

- 직 원: 282명
- 장 서: 7,537,325
- 이용자: 781,622명



2013 12월 12일
국립세종도서관 개관
(세종특별자치시 다솜3로)

- 직 원: 307명
- 장 서: 9,374,473
- 이용자: 809,522명



2020 10월 15일
국립중앙도서관
(개관 75주년 기념식)

- 직 원: 290명
- 장 서: 12,600,000



[심벌마크 변천사]



1991년 문화부 이관을 기념하여 제정한 심벌마크로, 책을 정삼각형의 구도로 배치하여 안정성과 진취성을 표현함.



1999년 국립중앙도서관 54주년을 기념하여 21세기 정보화 사회를 선도하는 이미지를 부각하기 위해 새롭게 제정함.



2008년 디지털도서관 준공을 계기로, 국립중앙도서관 본관과 신축 디지털도서관의 외형을 형상화하여 새롭게 제정함.



2016년 로고 통일 지침에 의해 국립중앙도서관의 로고도 정부기관의 로고인 태극문양으로 변경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음.

[기타 심벌마크]



1983년 도서관회총에 실린 로고로, 소공동의 도서관을 형상화



2015년 개관 70주년 및 천만장서 달성의 기념으로 제작한 기념로고



2020년 국립중앙도서관 75주년의 이미지를 대표하는 상징으로 제작한 기념로고

1

도서관,
시대를 걷다

—

도서관의 보물창고

국립중앙도서관은 28만여 책의 고문헌을 소장한 국내 고문헌 최대 소장처이다. 귀중본은 3천여 책에 이르는데, 그 중에서도 문화재로 지정된 자료는 19종 69책(점)이다. 제1부 ‘도서관의 보물창고’에서는 국립중앙도서관의 보물이자 지정문화재 19종을 한자리에서 관람할 수 있도록 전시하였다. 도서관 소장 지정문화재는 국보 2종 26책, 보물 9종 17책(16책+1괄)의 국가지정문화재를 비롯하여 서울시 유형문화재 5종 8책, 등록문화재 3종 18책으로 구성되어 있다.

국보 [國寶]

국보는 중요한 가치를 지닌 보물급 문화재 중 국가가 법적으로 지정한 유형문화재를 말한다. 도서관이 소장하고 있는 국보는 2종으로, 국보 제319-1호이자 세계기록유산으로 지정된 『동의보감』과 조선 최초의 금속활자 계미자로 인출한 국보 제148-2호 『심철사찬고금통요 권17』이다. 특히 『동의보감』은 동양최고의 의학서로 2009년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지정되어 세계적으로도 그 가치를 인정 받았으며, 2012년 국립중앙도서관에 보물로 지정되어 있던 『동의보감』을 국보로 승격 신청하여 2015년에 국보로 지정되었다. 국립중앙도서관 소장본은 오대산 사고(史庫)에서 보관되어 온 25권 25책의 완질본이다.



동의보감(東醫寶鑑)

허준(許浚) | 1613년 | 목활자본 | 국보 319-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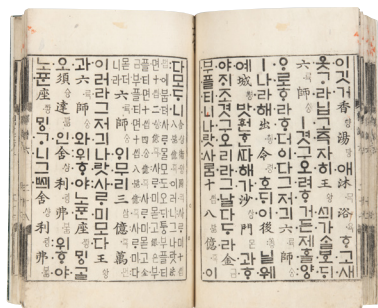


심철사찬고금통요(東醫寶鑑)

1412년 | 금속활자본 | 국보 148-2

보물 [寶物]

보물은 역사·예술·학술적 가치가 큰 유물로서 국가가 법적으로 지정한 유형문화재를 말한다. 도서관이 소장하고 있는 보물은 총 9종으로 귀중본 1호인 『석보상절』을 비롯하여 학술연구의 중요한 사료가 되는 『동인지문사육』과 『언해태산집요』 등 고서 3종과 『서북피아양계만리일람지도』, 『해동여지도』, 『청구도』, 『목장지도』 등 고지도 4종, 민간활자 및 인쇄용구 1종, 여러기관의 소장자료와 함께 일괄 보물 지정된 『조경단준경묘 영경묘영건청의궤』가 있다.



석보상절 제6, 9, 13, 19(釋譜詳節 第6, 9, 13, 19)

수양대군(首陽大君) | 1447년 | 금속활자본 | 보물 523



동인지문사육 권10-12(東人之文四六 卷10-12)

최해(崔瀼) | 1355년 | 보물 710-3



민간활자 및 인쇄용구

1850-1930년대 | 1괄 | 보물 865



언해태산집요(諺解胎産集要)
허준(許浚) | 1608년 | 목활자본 | 보물 1088-1



**서북피아양계만리일람지도
(西北彼我兩界萬里一覽之圖)**
18세기 | 필사본 | 보물 1537-1



해동여지도(海東輿地圖)
저자미상 | 조선시대 | 필사본 | 보물 1593



청구도(靑邱圖)
김정호(金正浩) | 1834년 | 필사본 | 보물 1594-1



목장지도(牧場地圖)
사복시(司僕寺) 편 | 1678년 | 채색필사본
보물 1595-1



**조경단준경묘영경묘영건청의궤
(肇慶壇湣慶墓永慶墓營建廳儀軌)**
조선시대 | 필사본 | 보물 1901-5

기타 지정문화재 [文化財]

현재 국보·보물 같은 국가지정문화재 지정관리는 문화재청에서 담당하고 있고 시도지정문화재의 지정 관리는 지자체가 담당하고 있는데, 도서관은 서울시에서 지정한 문화재로 구한말 열강들과 체결한 통상조약 5종을 소장하고 있다. 또한 지정되지 않은 문화재 중에서 보존을 위한 조치가 특히 필요한 것은 문화재청에서 등록문화재로 등록하고 있는데, 도서관에는 『대한매일신보』, 『전보장정』 및 『도화임본』 3종이 소장되어 있다. 『전보장정』의 경우 2012년 한글분야 문화재 등록 조사사업을 계기로 등록문화재로 지정되었는데 훈민정음이 창제된 이후 최초로 한글의 기계화가 이루어진 결과물로 중요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



조아통상조약(朝俄通商條約)

1884년 | 필사본 | 서울시유형문화재 제 108호



조영통상조약(朝英通商條約)

1884년 | 필사본 | 서울시유형문화재 제 109호



대조선국대덕국통상조약(大朝鮮國大德國通商條約)

1884년 | 필사본 | 서울시유형문화재 제 110호



대한국대청국통상조약(大韓國大清國通商條約)

1899년 | 필사본 | 서울시유형문화재 제 111호



조불통상조약(朝佛通商條約)

1886년 | 필사본 | 서울시유형문화재 제 112호



대한매일신보(大韓每日申報)

대한매일신보사 | 1904~1909년 | 등록문화재 509-1호



전보장정(電報章程)

전보국 | 1888년 | 등록문화재 529-2호



도화임본(圖書臨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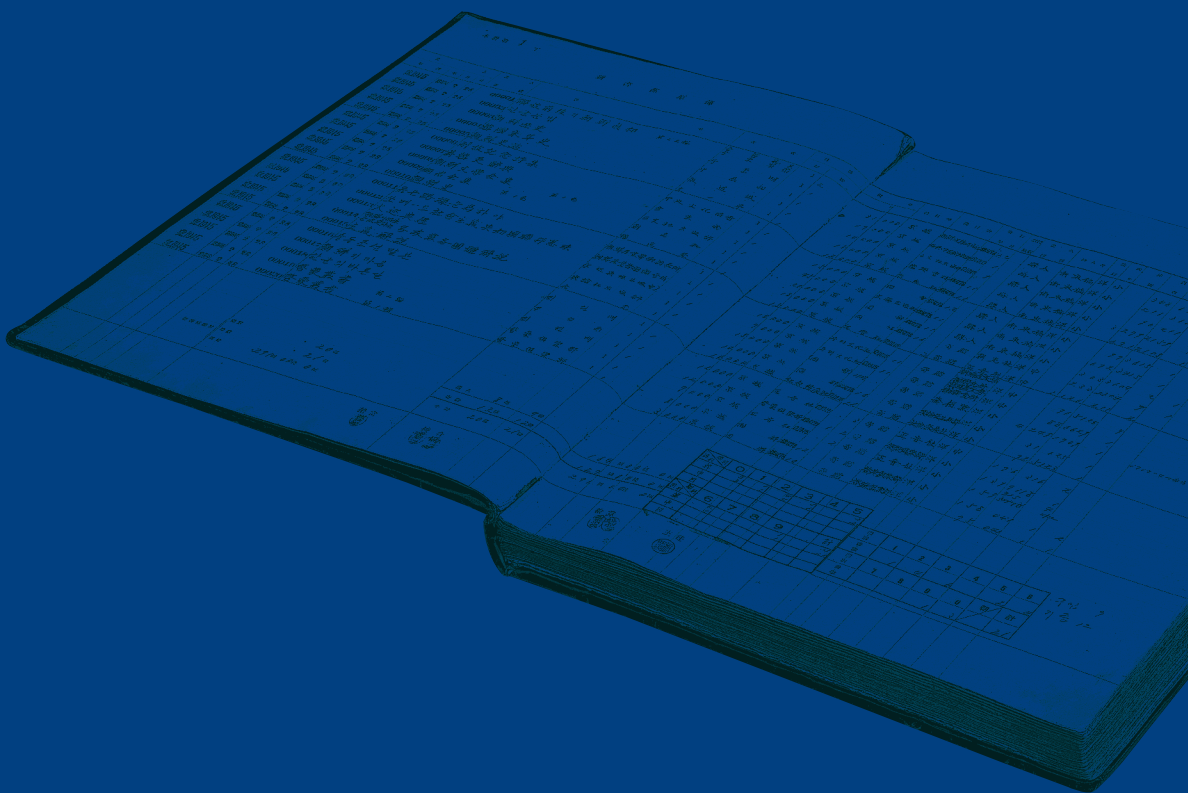
1907년 | 등록문화재 733호

2

도서관,
시대를 걷다

시대별 도서관사^史와 출판사^史

2015년 국내 최초 천만장서 달성, 현재 1260만 장서를 소장하고 있는 국립중앙도서관은 국내에서 출판된 자료의 대부분을 소장하고 있다. 제2부 ‘시대별 도서관사(史)와 출판사(史)’에서는 도서관의 시대별 역사와 동시대 대표 출판물에 대해 소개한다. 국립중앙도서관의 전신인 조선총독부도서관 시기에는 개화기 계몽도서와 금서를, 1945년 한국인의 힘으로 개관한 국립도서관 소공동 시기에는 1950년대 잡지류와 1960대 전집류를 소개한다. 1974년 남산으로 이전한 시기에는 1970년대 문고류를, 1988년 이후 지금의 반포동 시기는 1980년대부터 2010년 이전에 이르기까지의 베스트셀러, 2010년부터인 도서관의 디지털 시대에는 전자책에 대해 소개한다.



[전신] 조선총독부도서관 시기 [1923(1925)~1945]

국립중앙도서관의 전신은 1923년에 발족하여 1925년에 개관한 조선총독부도서관이다. 일제의 조선 신교육령에 의거하여 개관한 조선총독부도서관은 사상의 관측소로서 기능하여 조선의 식민 지배를 위해 조선의 문헌을 수집하였다. 이들 장서 중 대부분은 광복 후 국립도서관으로 이관되어 현재까지 보존되고 있다. 조선총독부도서관의 시기는 국립중앙도서관의 75년 역사에 포함되지는 않지만, 이번 전시에서는 도서관자료의 연속성 측면에서 간략하게 포함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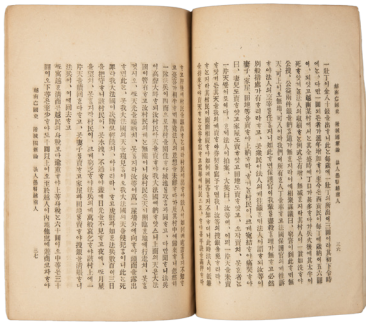


개화기 계몽도서

개화기 또는 근대계몽기를 가름 짓는 시대정신은 단연 자주독립과 문명개화였다. 제국주의의 폭력적인 식민화 정책에 맞서 자주적 문명국가를 세우려면 부국강병(富國強兵)과 무실역행(務實力行)이 무엇보다 중요했다. 당대의 선각자들은 애국익식과 현실개혁 의지가 불충분했던 대중들을 이끌기 위해 신문화의 총아인 근대적 인쇄·출판제도를 적극 활용했다. 그 결과 대중들은 새로운 지식과 정보로 가득한 신문과 잡지, 시대현실에 맞게 잘 기획된 단행본들을 손쉽게 접할 수 있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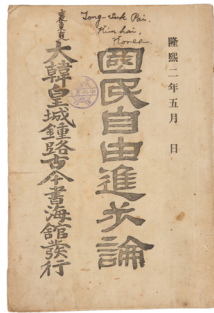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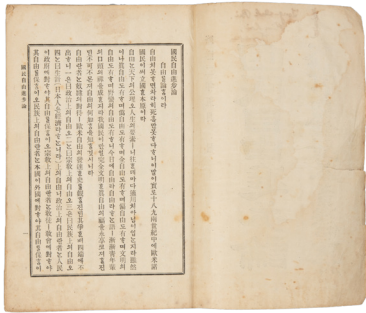
당대의 계몽지식인들은 '새나라 건설'이라는 대중들의 꿈을 구체화하기 위해 인쇄·출판 분야에서 두 가지 전략을 취했다. 첫째, 우리 전통의 언어, 지리, 역사, 문화, 생활을 주체적 입장에서 서술했다. (예: 『신편 대한지리』, 『(초등)대한력사』) 둘째, 외국의 사례를 잘 살펴 망국(식민화)의 처참한 현실 및 문명국 건설에 성공한 나라들의 위력을 동시에 알렸다. (예: 『월남망국사』, 『서사건국지』, 『국민자유진보론』) 그럼으로써 식민 현실을 직시하고 민족적 자긍심을 고양하며 애국심 충만한 민족국가를 꿈꾸는 각성된 민중들의 출현을 적극적으로 도모했다.

그러나 일제는 민중들의 애국심과 저항의식을 억압하는 한편 식민통치에 어긋나는 인쇄·출판물을 배제하기 위해 그들 지배정책에 충실한 신문지법과 출판법을 적극 시행했다. 폭력적인 검열 및 감시 과정을 거쳐 발매·배포 금지 도서로 지정된 끝에 압수·폐기 처분된 대표적인 인쇄물이 오늘 전시 중인 서책들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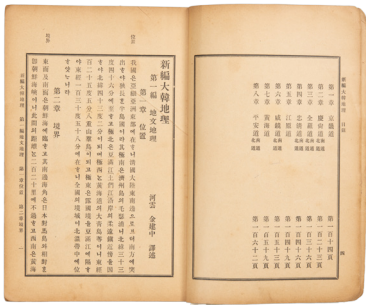
월남망국사(越南亡國史)

보성관 | 1907년



국민자유진보론(國民自由進步論)

고금서해관 | 1908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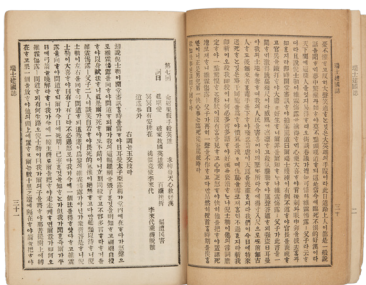
신편 대한지리(新編 大韓地理)

보성관 | 1907년



(초등) 대한력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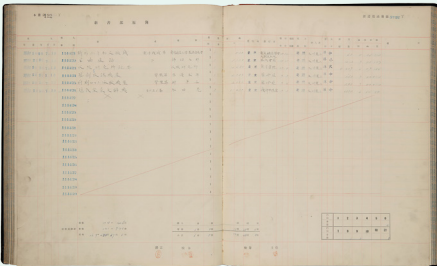
한양서관 | 1908년



서사건국지(瑞士建國誌)

대한매일신보사 | 1908년

조선총독부도서관 시기 [행정박물류]



조선총독부도서관 등록원부

가로 35cm 세로 42.5cm

조선총독부도서관 시기 등록원부로, 일제강점기 시대에 수집된 자료들의 등록대장이다. 1945년 7월을 마지막으로 도서관 자료의 등록이 멈추었다.



조선총독부도서관 목록함

일제강점기 | 가로 135.4cm 세로 55.0cm 높이 151.8cm

조선총독부도서관 시기 카드목록함이다. 저자순 또는 서명순으로 카드목록을 만들어 함에 넣어 배열하면, 이용자들이 카드목록을 살펴보고 원하는 정보를 얻었다. 전시된 목록함과 카드목록은 당시 소장 도서의 종류와 형태, 수집방법까지 알 수 있는 귀중한 사료이다.



조선총독부도서관 장서인 보관함

일제강점기 | 가로 27.0cm 세로 18.5cm 높이 8.5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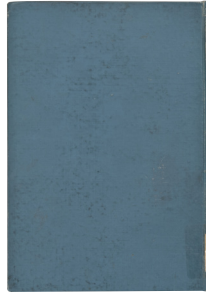
조선총독부도서관 자료의 장서인을 보관하던 함이다. 장서인은 자료가 도서관의 소유임을 나타내는 도장으로, 도서관자료에는 장서인이 찍혀 있다.

일제강점기 금서

1910년 8월 본격화된 일제 강점의 무단통치는 민중의 집단적·자발적 참여가 돋보인 3·1운동을 계기로 문화통치로 갑작스레 전환된다. 일제는 '문화의 발달과 민력의 충실'이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언론·출판·집회의 자유, 조선인 관리 임용과 처우 개선, 국민생활의 안정과 복리 도모 등을 구체적인 실행 방법으로 제시했다. 하지만 그들의 문화통치는 식민통치에 부응하는 일선융화(日鮮融和)를 강화하기 위해 취해진 교활한 민족분열정책에 불과한 것이었다. 왜냐하면 그게 무슨 분야든 식민통치에 방해되지 않는 선에서만, 또 그들의 동화정책에 순응하는 범위 내에서만 허용되는 허구적인 자유 / 자율 정책이었기 때문이다.

일제는 '조선적인 것' 일체를 교묘하게 통제하는 치안유지법을 설치하여 근대 천황제에 대해 반대하거나 비협조적인 '불령선인(不逞鮮人)'들을 철저히 골라냈다. 이를 위해 조선 내의 모든 출판물과 영화, 음반 및 도화의 출판과 발행, 발매에 관한 검열과 감시 업무를 제도화했다. 1930년대 출간된 『조선교육의 결함』, 『시가집: 춘원, 요한, 파인 합작』, 『님의 침묵』은 문화통치 아래 검열과 처벌의 폭력적인 본질을 잘 보여준다. 전자는 일제의 식민지 교육정책에 반한다는 이유로, 뒤의 2편은 조선민중의 민족의식을 고취하고 독립의 열망을 부추킨다는 까닭으로 금서 처분을 면치 못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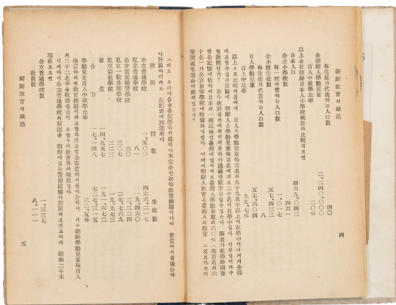




대한신지(大韓新地誌)
취문관 | 1907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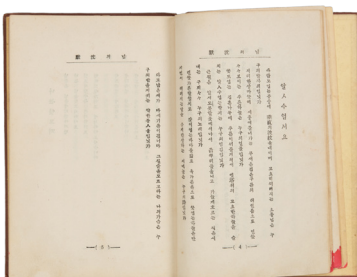
노동야학독본(勞動夜學讀本)
경성일보사 | 1908년



조선교육의 결함
세계서원 | 1930년



시가집
(詩歌集: 춘원, 요한, 파인 합작)
삼천리사 | 1929년



님의 침묵(님의 沈默)
한성도서 | 1934년

소공동 시대 [1945.10.15.~1974.12.1.]

1945년 10월 15일, 국립도서관으로 정식 개관하였다. 당시 직원은 34명, 장서 284,457책, 예산은 383,296원에 불과하였고, 당일 입관자수는 173명이었다. 개관 초기 도서관은 전국에 산재한 귀중본을 수집하는데 총력을 기울였다. 또한 1946년부터 국립조선도서관학교를 운영하여 사서를 양성하고, 1947년에는 우리의 주체성을 살린 십진식 분류표인 ‘조선십진분류표’를 발간, 1948년에는 조선동서편목규칙을 발간하여 국내 도서관계 발전을 위한 초석을 다졌다.

1950년 6.25 전쟁의 발발로 북한군의 고서 은닉과 회수, 귀중본 부산 이전 및 부산 임시연락사무소 설치 등의 시련을 겪으면서도 도서관 장서를 지키기 위한 사서의 노력은 계속되었다.

1963년 ‘도서관법’이 제정 공포됨에 따라 도서관은 현재의 명칭인 국립중앙도서관으로 개칭되었고, 우리나라 도서관 관련 사업을 주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법적인 위상을 가지게 되었다. 또한 1965년 납본제도가 시행되면서 국내 발행 출판물에 대한 수집범위를 점차 넓혀나갔다. 소공동 시기에는 도서관의 내부와 외부를 정비하고, 잠재역량을 높이는데 주력한 시기였다.



국립도서관_독서주간



어린이 도서관



부녀자 자료실

1950년대_잡지류

1945년 8월부터 1950년대는 위기와 기회가 공존하는 시대였다. 해방기의 좌우이념투쟁, 1950년 6.25전쟁 발발과 1953년 분단체제 고착, 그에 따른 정치체제의 불안정과 미국의 경제원조 등은 우리의 안정된 삶과 현실개선 의지를 어지럽도록 뒤흔들었다. 하지만 제반 민주주의와 평화적 삶이 보장되는 새 나라에 대한 열망은 고된 현실을 조국 발전에 필요한 물질·정신적 토대로 수용케 하는 놀라운 마법을 불러왔다.

해방기 3년과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가 상당히 구별된다. 해방기 좌우파 문화진영은 일제잔재청산을 제일 과제로 내세우며 좌파는 민중문화를, 우파는 민족문화를 새로운 시대상으로 내세웠다. 전시본 『신천지』는 초기에는 좌파의 작품과 논설도 간간히 실었지만, 점차 우파 민족주의의 사상과 이념을 대변하는 잡지로 나아갔다. 이에 반해 좌파 조선문학가동맹에서 발행한 『문학』은 사회주의 체제의 우수성을 선전하던 끝에 1948년 남한 단독정부 수립 즈음 폐간되었다. 1950년대 출판계는 6.25전쟁과 전후 복구사업에 따른 경제적 궁핍과 강력한 이념 통제 때문에 그 운영의 불확실성이 매우 컸다. 하지만 이러한 부정적 순간에도 문화계는 대중들의 심리적 안정과 개성적 취향의 발현을 도모하기 위해 각양각색의 잡지와 단행본을 출간했다. 전시본 『희망』은 6.25전쟁 와중에 임시수도 부산에서 간행된 대중잡지로 인기가 높았고, 중고생의 교양과 문예 활동에 크게 기여한 『학원』도 휴전 이전인 1952년에 선보였다. 현존하는 최장수 월간 문예지 『현대문학』은 1955년 새해 첫날 전통 깊은 고전문학 계승과 새로운 현대문학 건설을 취지로 창간되었다. 하지만 분단체제의 고착화는 국가보안법에 기초한 검열과 통제의 그림자를 짙게 드리우는 부정적 현상을 낳기도 했다. 휴전 3개월 전 창간된 『사상계』를 두고 1970년 폐간 당시까지 자행된 여러 차례의 필화사건이 그 쓰라린 결과물이다.



희망(希望) 희망사 | 1951-1963년



사상계(思想界) 사상계사 | 1953-1970년



학원(學園) 학원사 | 1952-1962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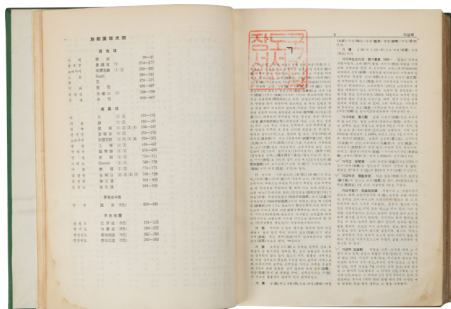
현대문학(現代文學) 현대문학사 | 1955년-현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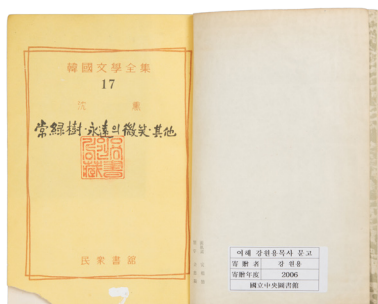
신천지(新天地) 서울신문 | 1946-1954년

1960년대_전집류

출판문화사에서 '전집(全集)'이란 형태의 출판물이 등장한 시기는 1930년대 초였다. 삼천리사에서 1931년 『근대문학전집』이라는 이름으로 춘향전, 흥부전 등의 고전 소설을 모아 출간한 것이 시초였다. 1930년대 말에는 한성도서주식회사, 박문서관, 영창서관, 조광사 등을 통해 약 7종의 문학전집이 출간되었다. 해방 이후에도 몇 종의 전집물이 출간되었으나 본격적인 '전집 붐'은 1958년부터 발현되었다. 을유문화사, 정음사, 동아출판사에서 발간한 『세계문학전집』, 민중서관의 『한국문학전집』 등이 1960년대를 전집의 시대로 만들었다. 1950년대 후반, 출판사의 규모가 커지고 자본이 축적되면서 등장한 전집물은 외판(外販)과 월부제(月賦制)라는 판매 전략을 바탕으로 성장했다. 외판사원이 가가호호 방문하여 책을 판매하고 책값을 분납할 수 있는 이러한 제도들은 장서용 도서를 원했던 중산층 이상 소비자들과 교양 도서를 찾는 독자들의 구매욕을 부추겼다. 당시 전국의 서점은 800여 개의 불과했지만, 전집물 유통·판매를 담당하는 외판센터가 서울에만 수십 개소나 있을 정도로 전집 시장은 호황을 누렸다. 전집 발간은 '정전正典'의 형태로 민족주의라는 이데올로기가 배경이 된 '문학전집'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문단과 출판계, 교육계 등 문학 제도 형성에 관여하는 주체들은 문학적 계몽주의에 입각해 문학전집을 만드는 데 매진했다. 1960년대 중반부터는 전집의 종류가 다양해져서 『러시아문학전집』, 『흑인문학전집』, 『한국수필문학전집』, 『한국여류문학전집』, 『세계동화전집』 등 특정한 문화권, 장르, 주제를 중심으로 하는 문학전집도 여러 종 발간되었다. 1960년대의 문학전집은 오늘날 주요 문학서 출판사들이 발간하고 있는 다양한 문학전집의 원형으로서 '문학의 대중화'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다.



대백과사전 학원사 | 1958년



한국문학전집(상록수, 영원의 미소)

민중서관 | 1964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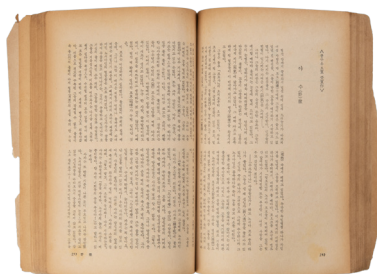
세계문학전집(돈끼호테)

을유문화사 | 1958년



한국아동문학독본(방정환 아동문학독본)

을유문화사 | 1966년



세계문학전집(불란서전후문제 작품집)

신구문화사 | 1960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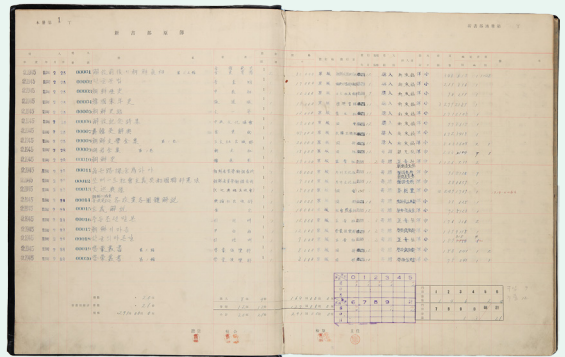
소공동시대 [행정박물류]



소공동시대 현판

1960년대 | 가로 30.0cm 세로 170.0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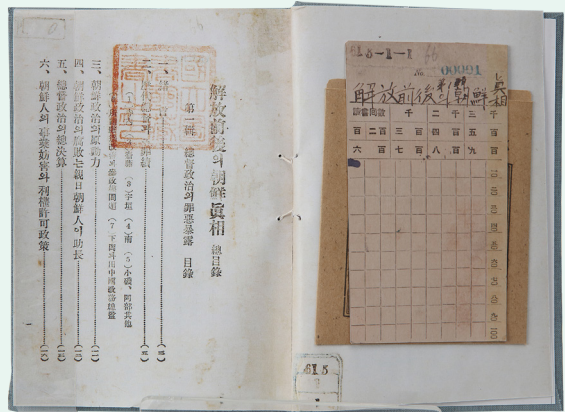
소공동시대 국립중앙도서관 현판으로,
도서관 2층 상설전시장 문화마루에 전시되어 있다.



등록원부

1950~60년대 | 가로 35.0cm 세로 42.5cm

체계적인 자료 관리를 위해 소공동 시절에 만든 국립중앙도서관 최초의 등록원부로서, 등록번호 1번을 시작으로 차례로 기재되어 있다. 우리나라 국립도서관으로서 새로운 역사의 시작을 볼 수 있는 귀중한 자료이다.



제1 등록자료

조선정경연구사 | 1945년 | 가로 10.0cm 세로 17.0cm

1945년 개관 후 국립도서관의 제1 등록자료인 『해방전후의 조선진상』이다. 도서관 등록원부에 1호로 등록된 서적으로, 한민당과 중간 파에 몸담았던 저자들이 해방 직후에 생긴 각종 정치단체들의 인물, 선언, 정당 등을 소개한 책이다. 제1 등록자료는 도서관 2층 상설전시장 문화마루에 전시되어 있다.

남산 시대 [1974.12.2.~1988.5.27.]

1974년 도서관은 회현동의 남산어린이회관 건물을 개조하여 이전 개관하였다. 남산 시기 도서관은 협소한 공간과 접근성 불편 등 어려움을 겪는 와중에도 여러 사업을 추진 하였다.

특히 **1980년**에는 자동화된 목록을 생산하기 위해 ‘한국자동화목록형식(KORMARC)’ 제정을 비롯한 각종 표준 포맷의 개발, 보급을 통해 도서관목록 업무에 대한 자동화 시대의 기반을 조성하였다.

1981년에는 아현동 분관을 역삼동으로 이전·개관하여 장서 10만권, 열람석 1,200석의 공공도서관으로 운영하며 공공도서관 최초의 열람회원제도를 실시하였고, **1983년**부터 사서직공무원에 대한 직무교육 실시, 장서 확충에 힘쓰는 등 짧은 시기 중요한 사업들을 성공적으로 추진하였다.



국립중앙도서관(남산) 전경



남산시기 대강당



남산시기 한국학문헌실



남산시기 자료대출광경



남산시기 참고봉사실



남산시기 철제 목록함 전경

1970년대_문고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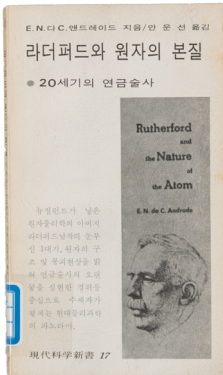
문고본(文庫本)은 대량 보급을 목적으로 저렴한 가격에 지속적으로 발간되는 출판물을 가리킨다. 엽가본(廉價本), 소형본(小型本), 경장본(輕裝本)의 특성을 두루 갖춘 문고본은 경제적 부담이 적고 휴대가 간편하며 방대한 양의 지식과 정보를 비교적 빠른 시간 안에 습득할 수 있도록 고안되었다. 문고본이 담당하는 분야는 문학, 역사, 철학, 실용, 취미·오락 등 그야말로 무궁무진하다. 전집(全集)이 특정 키워드로 방대한 양의 지식을 일정한 볼륨과 체제를 통해 한정시켰다면 문고본은 보다 확장된 축적의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즉 먼저 출간된 책들과의 연속성·관련성·체계성을 배제하지 않은 채 끝없이 확장 가능한 출판의 형식이다.

본격적인 문고본 출간은 해방 이후에 이루어졌다. 정음사의 '정음문고', 을유문화사의 '을유문고', 민중서관의 '민중문고' 등이 우후죽순 발간되면서 제1차 문고 붐을 선도했다. 6.25전쟁으로 출판시장이 침체에 빠지면서 주춤했던 문고본 출간은 1950년대 후반에서 1960년대 초반 사이에 다시 한 번 호황을 맞이하게 된다. 양문사의 '양문문고', 여원사의 '현대문고', 사상계사의 '사상문고', 탐구당의 '탐구신서', 박영사의 '박영문고' 등이 제2차 문고 붐 시기에 발간된 책들이다. 제3차 문고 붐은 1970년대에 나타났다. 독자 저변 확대와 지식의 대중화가 사회적 화두로 떠오르면서 을유문화사의 '을유문고', 정음사의 '정음문고' 등 1차 문고 붐의 주역들이 다시 출판시장에 등장했으며, 서문당의 '서문문고', 삼중당의 '삼중당문고', 전파과학사의 '현대과학신서', 어문각의 '새소년클로버문고', 열화당의 '미술문고', 범우사의 '범우 에세이문고' 등 다양한 독자층과 장르를 대상으로 한 문고본들이 속속 등장하면서 이른바 '문고본의 황금시대'를 열었다.



삼중당문고(페스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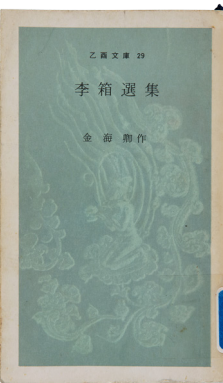
삼중당 | 1975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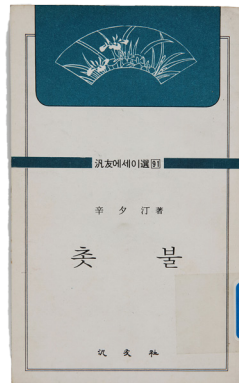
현대과학신서
(라더퍼드와 원자의 본질)
전파과학사 | 1973년



미술문고
(한국현대건축의 이해)
열화당 | 1976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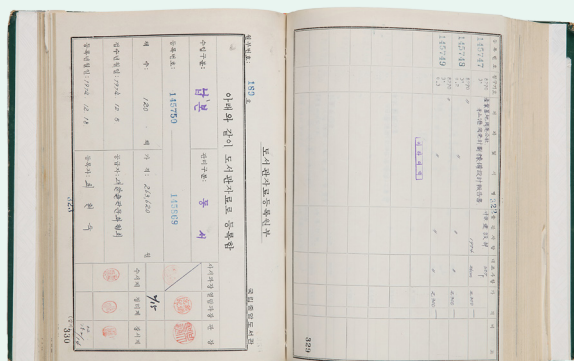


을유문고
(이상선집)
을유문화사 | 1969년



범우에세이문고
(춧불)
범우사 | 1976년

남산 시대 [행정박물류]



등록원부

1970년대 | 가로 20.0cm 세로 26.0cm

남산 시절의 등록원부이다. 남산 시절에 수집한 도서관자료의 수집 및 등록 내역들이 기록되어 있다. 짧은 기간이었지만 남산시절 도서관은 국가도서관으로서의 기반을 갖추기 위해 장서 확충에 전력을 다했다.



목록함

1970년대 | 가로 135.4cm 세로 55.0cm 높이 151.8cm

남산 시절에 구입한 목록함이다. 검색시스템이 없던 시절 이용자는 목록함의 카드목록으로 책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었다.

반포동 시대 [1988. 5. 28.~현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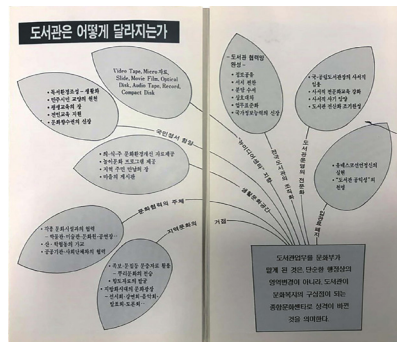
국립중앙도서관은 발전된 도서관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1988년** 현재의 서초구 반포동 서리풀공원 내에서 새로 개관하였다. **1991년** 도서관진흥법 제정으로 국가대표도서관임이 명시되고, 도서관의 소속부처가 문교부에서 문화부로 변경되면서 국가 문화기반 시설의 핵심기관으로서 역할을 부여받는 한편 소관부처 이관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1990년대를 거치면서 도서관은 본격적인 성장과 발전을 거듭했다. 정보화 시대의 흐름에 맞춰 도서관계의 전산화를 위한 활동에 주력했다. 또한 ISBN 발행자번호 발급, 일반열람실 폐지 및 도서관 본래의 기능 회복, 도서관협력망 구성에 따른 지역대표관 지정, 전자도서관 시범시스템을 실시하는 등 도서관의 내연을 다지고 성장하는데 힘썼다. **2000년** 자료보존관이 준공되면서 국가문헌의 체계적·과학적 보존의 중심 역할을 수행하기 시작했다. 이어 출판시도서목록(CIP)제도 실시, RFID 적용 경영정보시스템 구축사업, KOLAS II 보급 및 KOLIS-NET 서비스 등 도서관 전방위 분야에서 많은 사업들을 발굴하여 추진하였다.

또한 **2006년**에는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이 개관되어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한 서비스를 개발하고 배포하였다. 이어 **2007년** 도서관연구소, 국립장애인도서관지원센터가 신설되고, **2009년** 디지털 도서관이 개관되면서 도서관의 외연은 급속히 확장되어 갔다.



개관 당시 전경



문화부 이관 기념 팸플릿



자료보존관 준공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준공

1980~2000년대_베스트셀러

1980년대는 이념의 시대이자 논쟁의 시대였다. 정치권력에 저항하는 논리를 담은 인문사회과학서적이 대학가에서 큰 인기를 끌었다. 산업화로 인한 도시집중의 물결 속에서 정신적으로 방황하는 대중을 위무하는 소설과 에세이가 불티나게 팔려나갔다.

의협심이 강한 현대판 홍길동이 종횡무진으로 악의 무리를 응징하는 『인간시장』은 한국출판 역사상 최초의 공식적인 밀리언셀러가 되었다. 산업 시대의 새로운 인간상을 제시하는 『배짱으로 삼시다』가 남성들의 처세술 책으로 작동했다. 이상과 현실의 어느 쪽으로도 속하지 못하고 방황하다 자살하는 ‘종로통 아이’ 소양이 주인공인 『숲속의 방』은 1980년대 젊은 여성의 한 전형을 보여주었다. 1980년대는 대하소설의 시대이자 시의 시대였다. 민중시와 노동시를 즐기던 대중은 후반기에 서정시에 빠져들었다. 『접시꽃 당신』과 『홀로서기』는 시집으로서는 불멸의 판매 부수를 기록했다.

현실 사회주의 몰락 이후 맞이한 1990년대의 주인공은 개인이었다. 개인은 자신을 드러내고자 하는 욕망의 수위를 점차 높여갔다. 베스트셀러 제목에 가장 많이 등장한 단어는 ‘나’였다. 그 문은 『세계는 넓고 할 일은 많다』가 열었고, 『나는 포르노 그래피의 주인공이고 싶다』가 닫았다. 가정과 직장과 사회에서 버림받은 중년 가정의 쓸쓸한 초상을 그린 『아버지』는 최단기간에 200만 부를 돌파하는 기록을 세웠고, “우리나라는 전 국토가 박물관이다”는 캐치프레이즈를 걸고 혜성같이 등장한 『나의 문화유산답사기』는 27년이 지난 지금도 인기를 이어가고 있다. 세계화와 정보화가 동시에 진행되었던 이 시기는 과학서, 경제경영서, 어학서적, 컴퓨터서적 등이 쏟아지며 매우 다양한 분야의 서적이 베스트셀러로 큰 사랑을 받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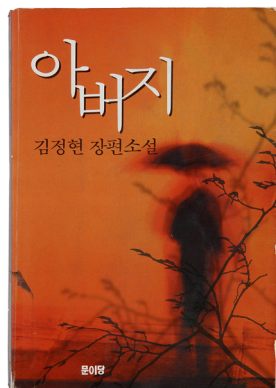
새 천년인 2000년대에 접어들면서는 ‘벤처 열풍’이 대단했다. 이는 IMF 외환위기로 많은 어려움을 겪은 반작용에서 비롯되었다. 변화하기만 하면 ‘성공’할 수 있다고 속삭이는 책들이 상종가를 쳤다. 『누가 내 치즈를 옮겼을까』를 필두로 10종 이상의 자기계발서가 밀리언셀러의 반열에 올랐다. 하반기에는 개인의 관심은 ‘성공’에서 ‘행복’으로 대체되었다. 아무리 노력해도 성공할 수 없었던 개인은 모자란 것이 있어도 내가 즐거우면 그만이라는 생각을 하면서 자신을 다독였다. 그때 진정 자신이 원하는 것에만 집중하라는 가르침을 담은 『시크릿』이 등장해 폭발적인 반응을 이끌어냈다. 이후 출판시장은 ‘셀프 힐링’의 깊은 늪으로 빠져들었다. 글로벌 금융위기의 국면에서 등장한 『엄마를 부탁해』는 절대 고독에 빠져들던 대중의 심금을 울리며 한국 소설로서는 최대의 판매 부수를 기록했다. 2000년대는 절대 고독의 개인이 발견되는 여정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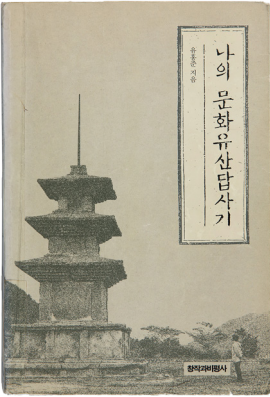
인간시장 김홍신 저 | 1981년
행림출판사



접시꽃 당신 도종환 저 | 1988년
실천문학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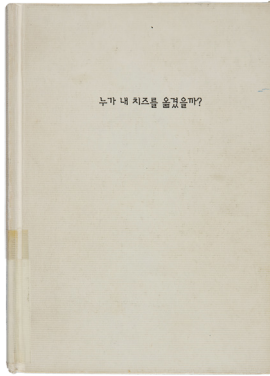


아버지 김정현 저 | 1996년
문이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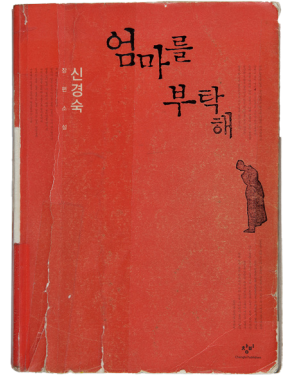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

유홍준 저 | 1993년 | 창작과 비판



누가 내 치즈를 옮겼을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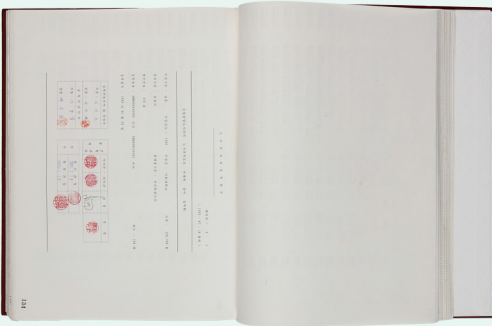
스펜서 존슨 저 | 2001년 | 신명출판사



엄마를 부탁해

신경숙 저 | 2008년 | 창비

반포동 시대 [행정박물류]



등록원부

1980년대 | 가로 28.5cm 세로 46.5cm

도서관의 자료는 납본, 구입, 기증 등을 통해 수집되어 자료로 등록된다. 등록원부는 도서관이 소장하고 있는 모든 장서의 수집내역이 적혀 있는 장부로 도서관의 소중한 자산정보라고 할 수 있다. 수기로 작성하던 원부는 도서관업무가 전산화되면서 컴퓨터 시스템으로 관리 출력되었다.

열람카드 꽃이

1980년대~ | 가로 29.5cm 세로 18.5cm 높이 27.0cm

정부간행물실에서 사용하던 열람카드 꽃이다. 이용자가 폐가자료의 열람을 원할 때, 열람표를 작성하여 신분증과 함께 사서에게 제출하면 사서는 자료를 찾아 이용자에게 열람서비스를 하였다. 성명의 가나다순 배열로 이용자를 구분하였다. 이용자는 열람한 자료를 반납하고 열람표를 회수하여 도서관 출구에서 제출해야 했다. 현재는 컴퓨터를 통해 자료를 신청하고, 이용증으로 조회가 가능하도록 자동화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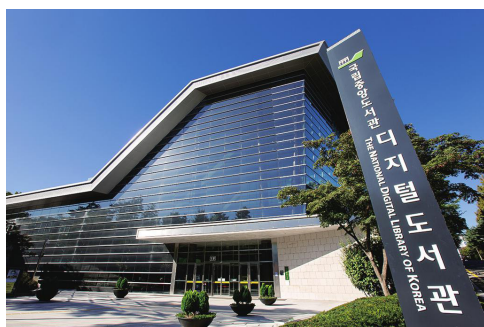


도서관의 디지털 시대 [2010년대~현재]

2009년 디지털도서관의 개관과 함께 도서관의 디지털콘텐츠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었다. 오아시스(OASIS), OAK(Open Access Korea), 빅데이터 사업 등 국가적 차원의 디지털 정보자원 발굴과 공유사업을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다. **2013년**에는 국내 최초의 정책정보 전문도서관이자 지역분관인 국립세종도서관을 개관하여 공직자의 정책 수립 지원을 위한 서비스를 시작하였다. 납본제도 시행 이래 납본 정책의 적극적 수행과 노력으로 **2015년**에는 국내 최초 천만장서를 달성하였고, 이어 **2016년**부터는 온라인자료 납본제도를 시행하여 온오프라인 국가문헌의 총체적 수집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

도서관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새로운 시대를 선도할 신기술 기반의 서비스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나아가 메이커스페이스(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미디어창작실 운영 등 정보 생산기 지로서의 역할을 확장하고 있다.

국립중앙도서관은 ‘국민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국가대표도서관’을 비전으로 국가지식자원의 접근과 보존 기반을 다지고, 이용자 중심의 국가도서관 서비스를 강화하며, 도서관 디지털 서비스의 지능화 및 도서관 협력·리더십 극대화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다.



디지털 도서관



영상스튜디오



세종도서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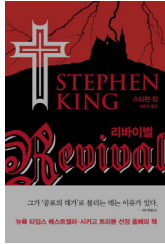
메이커스페이스(미공소)

2010년대_전자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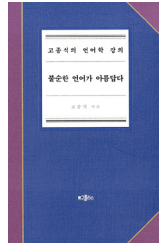
2009년 디지털도서관의 개관과 더불어 국립중앙도서관은 전자책을 수집하고 서비스를 시행하기 시작하였다. 전자책 시장은 출판계의 기대와 우려 속에서도 규모가 점점 증가하고 있지만, 전통적인 출판 유통 시스템과 구조적으로 차이가 있어 정부와 출판계의 심도 깊고 지속적인 정책적 고민이 필요하다. 국립중앙도서관은 2016년 온라인자료 납본제도 시행으로 전자책을 본격적으로 납본받고 있으나 아직 전자출판물의 납본률은 높지 않은 실정이다. 이번 전시에서는 납본된 전자책 중 이용률이 높은 자료 4종을 선별하였다. 이들 전자책은 도서관 내에서 누리집을 통해 이용할 수 있다.



하브루타독서법
양동일, 김정안 저 | 예문
2016년



리바이벌
스티븐 킹 저 | 황금가지
2015년



불순한 언어가 아름답다
고종석 저 | 로고폴리스
2015년



82년생 김지영
조남주 저 | 민음사
2015년



디지털 키오스크

가로 105cm 높이 146cm

도서관 이용 및 자료실 안내, 행사 안내 등을 위한 무인 종합정보 안내시스템인 키오스크를 설치하여 이용자의 이해를 돕고 있다. 전시된 키오스크는 구독하고 있는 신문자료를 디지털 형태로 제공한다.

로봇 스캐너

가로 78.0cm 세로 78.0cm 높이 190.0cm

도서관의 소장 자료를 디지털화하여 원문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로봇 스캐너를 활용하고 있다. 로봇 스캐너는 60°각도로 자료의 촬영이 가능하여 원자료의 훼손률이 적고, 빠른 속도와 높은 해상도로 자료의 디지털 아카이빙에 최적화된 도서관 기자재이다.

큐아이(큐레이팅 봇)

높이 140cm

도서관 상설전시장 문화마루에서 시범 운영중인 지능형 멀티 큐레이팅 봇이다. 자율주행 로봇으로 이용자에게 다가가 도서관 정보에 대해 능동적으로 안내를 할 예정이다.

디지털 시대 [행정박물류]



3

도서관,
시대를 걷다

도서관의 도서관, 국가대표도서관

국립중앙도서관은 1946년 최초의 소식지인 「관보」(館報) 등을 시작으로 도서관계 체계 확립과 대국민 학술정보 제공을 위해 다수의 책자를 발간하였다.

제3부에서는 이들 발간자료 중 도서관의 역사를 보여주는 간행물 「도서관」과 도서관을 대표하는 발간서지, 초기 자료정리법과 문서들을 소개한다.



대표 정기간행물: 「도서관」

1946년 3월, 「관보」라는 이름으로 4면의 팜플릿으로 출발한 「도서관」은 국립중앙도서관의 역사와 함께 성장했다.

「도서관」은 그동안 몇 차례 제호가 바뀌고, 이따금 발간이 중단되는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국내 도서관계의 관심과 호응 속에서 오늘에 이르게 되었다. 1984년 「도서관」은 소식지에서 학술전문지로 변경하여 보다 깊은 내용을 담기 시작하였고, 오늘까지 이어져 도서관계 다양한 이슈를 담는 학술지로서 발간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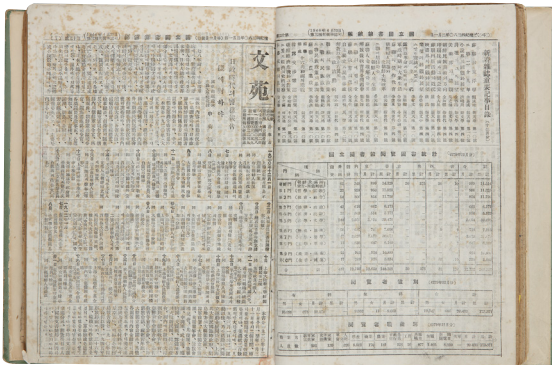
한편 이로 인한 소식지의 부재를 해소하기 위해 1991년 도서관은 「도서관계」를 별책부록으로 발행하였다. 도서관계는 통계, 법령, 사업 및 운영사례, 국내외 동향, 도서관인의 발언과 갖가지 뉴스를 기록하고 전달하는 또 하나의 긴요한 소식지로 발전해 나갔다.

이후 「도서관계」는 2011년 정기간행물 「오늘의 도서관」으로 제호를 바꾸었으며, 국립중앙도서관과 국내외 도서관계 소식을 전하는 메신저로서 전국 도서관인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



관보(館報)

국립도서관 | 1946년 | 월간



문원(文苑)

국립도서관 | 1947년 | 월간



국립도서관보(國立圖書館報 55호)
1958년 | 월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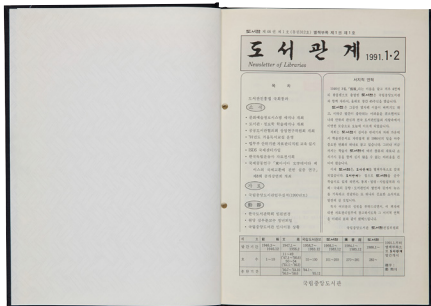
도서관(圖書館 101호)
1966년 | 월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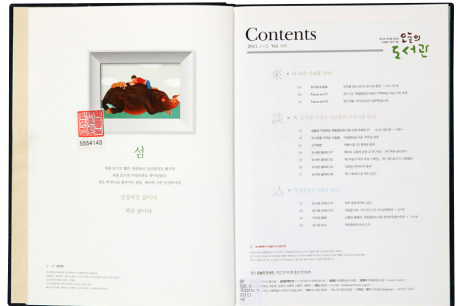
도서관(圖書館 270호)
1984년 | 월간



도서관(圖書館 394호)
2020년 | 연간



도서관계 1호(Newsletter of libraries NO.1)
1991년~2010년 | 월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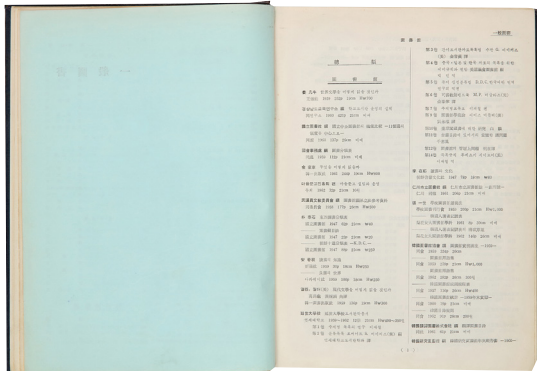


오늘의 도서관
2011년~ | 월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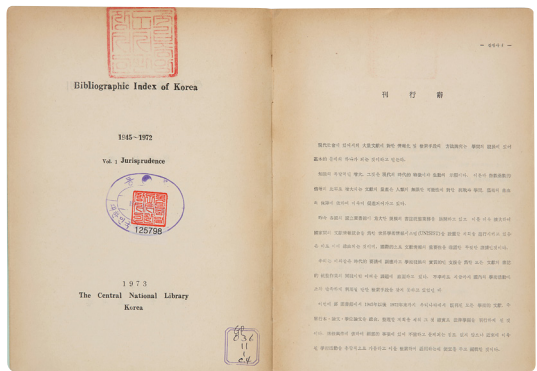
대표 발간서지목록

국립중앙도서관은 국내 출판물 및 학술자료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다양한 서지(書誌)들을 발간해왔다. 그 중 매해 대한민국 출판물에 대한 정보를 망라한 「대한민국출판물 총목록」은 납본도서관으로서 발간하는 고유의 발간자료이다. 국내 출판물 및 납본자료의 증가로 방대한 목록 수록과 원활한 정보제공을 위해 2004년부터 CD, DVD-ROM 등으로 매체를 변경하여 제작하였으며, 현재는 e-book 형태로 발간하여 도서관 누리집에서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하고 있다. 주제별 전문 학술정보 제공을 위해 발간해온 「학술논저총합색인」은 1973년 법률학을 시작으로 발간하기 시작하여 1999년 사회복지 주제를 끝으로 완료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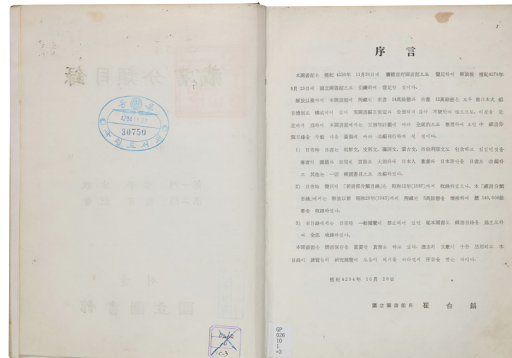
해방이전 자료에 대한 목록인 「장서분류목록」은 1961년부터 발간하기 시작하였다. 검색 시스템이 없던 시절 도서관이 소장하고 있는 자료를 목록으로 발간함으로써 당시 도서관 소장 지식정보의 체계화를 시도하였다. 같은 목적으로 발간한 목록에는 「고서목록」, 「외국고서목록」, 「장서분류목록해방 이후」, 「장서목록」 등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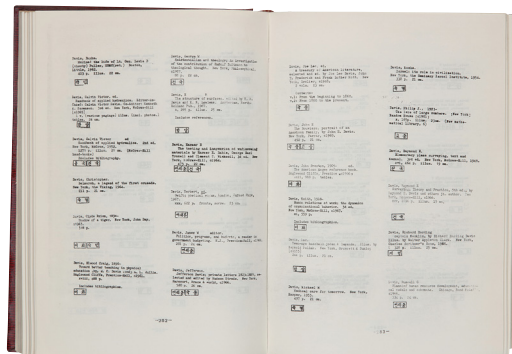
대한민국출판물총목록(초간본)
韓國書目 | 1964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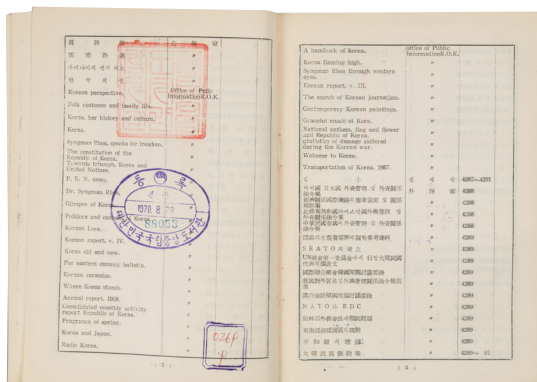
학술논저총합색인(초간본)
1973년



장서분류목록
1961년



외국도서종합목록(초간본) The Union catalog of foreign books in Korea
1970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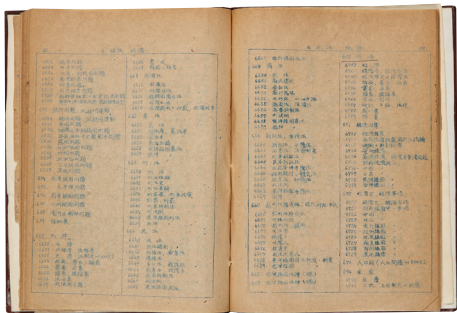


출품도서목록(出品圖書目錄)
1959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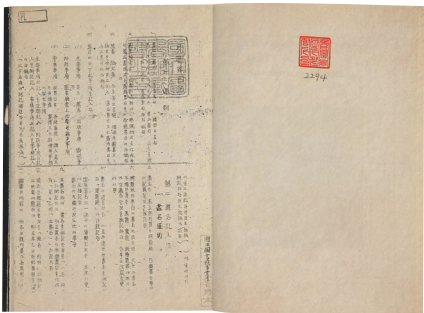
초기 자료정리법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최초로 발행한 단행본은 1946년 당시 부관장이었던 박봉석 편(編)의 「동서도서분류표」라 할 수 있다. 이어 1947년에는 「동서편목법」, 「조선십진분류법」을, 1948년에는 「조선동서편목규칙」이 발간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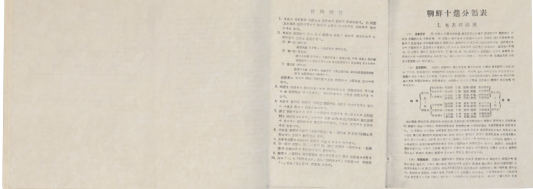
분류법과 목록규칙이 2년에 거쳐 4종이나 발간된 것은 해방 후 건국 초기의 자료들을 수집하고 정리하는 과정에서 한국 실정에 맞는 자료조직 기준을 마련했음을 보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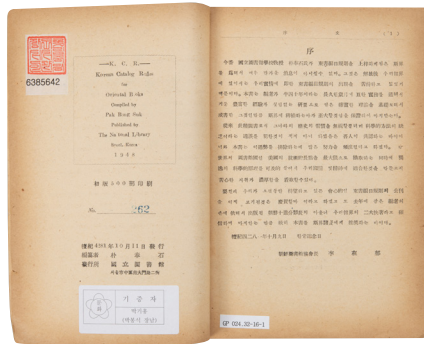
동서도서분류표(東西圖書分類表)
박봉석 편 | 1946년



동서편목법(東書編目法)
박봉석 편 | 1947년



조선십진분류표(朝鮮十進分類表)
박봉석 편 | 1947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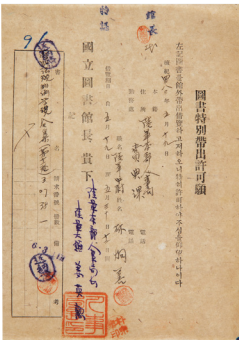


조선 동서편목규칙(朝鮮 東書編目規則: K.C.R.)
박봉석 편 | 1948년

국립도서관 초기 문서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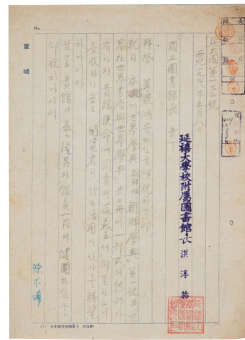
이번에 새롭게 발굴된 국립도서관 초기문서들이다. 한국도서관사연구회에서 기증한 개관 초기 문서들 중 9점을 이번 전시에서 최초 공개한다. 주로 국립도서관의 자료들을 대출하는 문서들로 다양한 기관에서 요청한 문서들이다. 건국 초기 도서관의 소장 자료가 사회 각 분야 기반조성에 기초자료로 활용되었음을 알수 있으며, 개관 초기 관외 대출반납 문서처리에 대한 정보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해방 직후부터 6.25전쟁 전까지 운영되었던 국립조선도서관학교의 입학원서 및 증명서도 최초 전시되어 당시 사서의 꿈을 키웠던 해방직후 학도들의 기록도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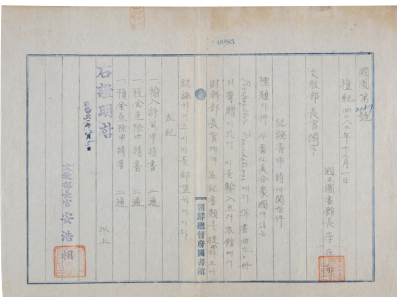
도서특별대출허가원

육군본부 강영훈 발급; 국립도서관 수신
1950년 5월 19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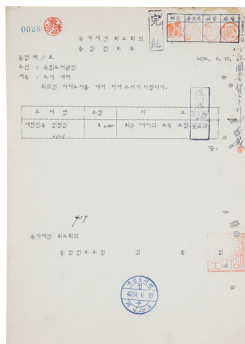
도서관 도서증정에 관한 건

연희대학교부속도서관 홍순혁 발급; 국립도서관 수신
1948년 5월 8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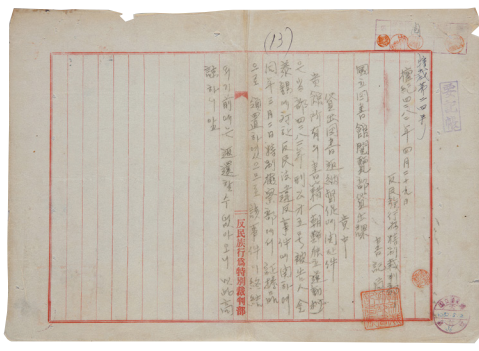
인증서신청에 관한 건

국립도서관 발급; 문교부 수신
1949년 12월 1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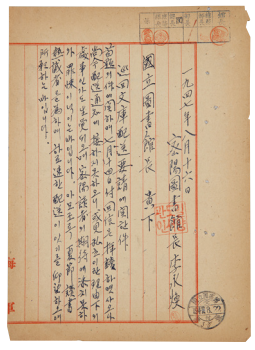
도서대여

국가재건최고회의 김종필 발급; 국립도서관 수신
1961년 6월 10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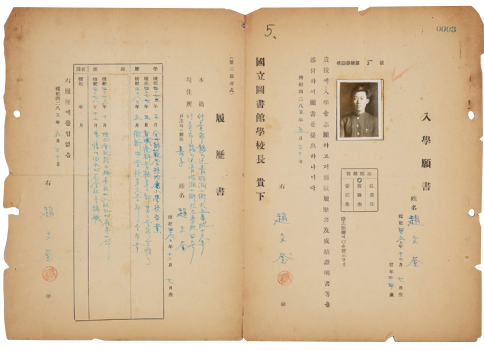
대출도서 반납독촉에 관한 건

반민족행위특별재판부서기국 특별재판부서기국 발급; 국립도서관 수신
1949년 4월 29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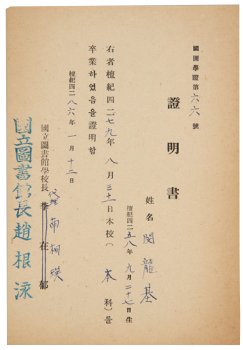
순회문고 배송 요청에 관한 건

밀양도서관 이영환 발급; 국립도서관 수신
1947년 8월 16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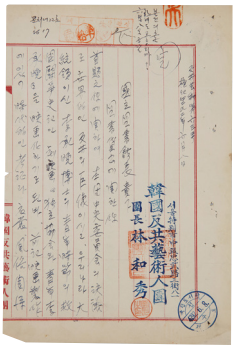
실무생 입학원서 및 이력서

조문 * 발급; 국립도서관 수신
1950년 5월 30일



증명서

국립도서관 조근영 발급; 민용 * 수신
1953년 1월 12일



도서대출에 관한 건

한국반공예술인단 임희수 발급; 국립도서관 수신
1959년 6월 8일

도서관 그때 그 시절



① 도서관의 이용요금

1945년 개관 당시 국립중앙도서관의 이용요금은 20전이였다. 이용요금은 이듬해 1월 50전으로 상향 조정되었으며, 이어 1원까지 인상되었다. 도서관의 입관료 제도는 계속 이어지다가 1983년에 폐지되었는데, 당시의 입관료는 10원이었다.

※ 참고로 1983년 전화요금은 20원, 시내버스 요금은 110원, 자장면 가격은 528원이다.



② IMF를 극복하기 위한 도서관 큰 행사

1998년 5월 30일, 도서관 앞마당에서 ‘책으로 여는 세상’ 캠페인 특별행사가 개최되었다. 1997년 외환위기가 찾아와 사회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국가적 위기 극복을 책 속에서 찾고 화합과 재도약을 결의하기 위한 행사이다. 김대중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다채로운 공연과 행사가 진행되었다.



③ 국외 반환도서 인수

1965년 체결된 ‘한일조약 및 협정’ 중 「문화재 및 문화협력에 관한 협정」에 따라 한국 고문헌 163종 852 책과 마이크로필름 238종 380책이 일본에서 반환되어 국립중앙도서관으로 이관되었다. 도서관은 이들 자료를 이관받아 귀중서고에 보관하고 있으며, 1966년과 1975년 당시 소식지 「도서관」에 목록을 게재하여 학계에 자료 정보를 제공하였다. 2001년과 2002년, 2년에 걸쳐 모두 디지털화를 완료하였다.



④ 자율복사제도 시험운영

“자율복사는 질서가 생명입니다” 도서관의 최초 복사기 구입시기는 1967년이었고, 본격적인 복사 서비스는 1969년부터 실시되었다. 점차 이용자의 자료복사 신청이 많아지면서 1992년에는 자율복사제도를 시험 운영하였다.



⑤ 탈공부방화

공부방의 이미지를 벗고 자료의 정보서비스를 위해 탈공부방화를 계속 시도하였지만 좀처럼 쉽게 개선되지 못했다. 지속적인 노력 끝에 1996년, 사회적 공감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결재를 받아 일반열람실을 없애는 대대적인 환경개선 사업을 추진, 탈공부방화에 성공할 수 있었다.

〈셔틀버스 정류장별 시각표〉

정류장 회수	당판	시조지하철역 주류소 앞	구반포주공2 단지APT앞문	당판
1	08 : 30	08 : 35	08 : 40	08 : 45
2	09 : 30	09 : 40	09 : 45	09 : 50
3	10 : 30	10 : 40	10 : 45	10 : 50
4	13 : 30	13 : 40	13 : 45	13 : 50
5	15 : 30	15 : 40	15 : 45	15 : 50
6	16 : 30	16 : 40	16 : 45	16 : 50

⑥ 셔틀버스 운행

도서관을 경유하는 교통편이 부족했던 1992년, 도서관은 이용자들의 교통편의를 위하여 셔틀버스를 운행했다. 32인승 중형버스 1대로 휴관일, 일요일 및 토요일 오후를 제외하고 매일 7회 1시간 간격으로 서초 지하철역과 구반포 주공2단지를 순회하는 교통편을 운영하였다.



⑦ 글방전화

문화부 신설과 더불어 국민들의 문화 전반에 걸친 궁금증을 풀어주고, 각종 의견을 수렴하여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설치되었던 5개의 상담전화 중, 국립중앙도서관은 문헌정보 전반에 대하여 상담해주는 ‘글방 전화’를 운영하였다.

국립중앙도서관 발간자료 서문에서 발췌한 발자취

1959 출판도서목록

우리는 오늘날 어떠한 종류의 책이든 그 권위와 고귀성을 다시한번 깨달아야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 책에 수록된 목록과 함께 신간도서목록도 국립도서관보에 다시 수록해서 이 전시회를 의의 있게 해주신 고마운 뜻을 길이 새겨 둘까 합니다.

1969 규정집

우리 도서관으로서도 국가 유일의 도서관으로서의 기능을 다하기 위하여는 먼저 도서관행정의 지침이 될 법령규정을 정비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로 등장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1971 사찰소장 고서목록

아무리 귀중한 전적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세상에 알려지지 않으면 그 가치는 격감될 것이며 또한 문화유산으로서 아무런 의의를 갖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본관에서는 전국 1,370개의 사찰에 고서실 태조사서를 발송하여서 42개의 사찰에 고서가 소장되어 있음을 알고, 그 협조를 받아서 목록을 작성하여 본 책자 목록을 발간하게 된 것입니다.

1973 도서관업무편람

이에 본도서관은 공공도서관의 업무수행에 길잡이가 되게 하기 위한 지침서로서 본서를 펴내게 되었다. 이 작은 책자가 공공도서관의 업무개선과 발전에 크게 이바지 하게 되기를 바라마지 않는다.

1975 한국도서관통계

본 통계가 도서관인에게는 물론 일반 연구분야에서도 귀중한 도서관정보 자료로 활용되어 도서관 발전에의 밑거름이 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1980 한국문헌 자동화목록법(한자목)

당관의 자동화 추진방향은 세계 각국의 국립도서관이 그러하듯 목록의 컴퓨터처리 시스템의 개발에 두었다. 이를 위해 제일 먼저 실행해야 할 과제는 입력 규칙의 제정이었다. (중략) **바라건대 본 포맷의 제정이 80년대로 향한 도서관 발전의 한 지표가 되고 성장하려는 굳건한 의지의 표상이 될 것을 기대한다.**

1991 한국문헌번호편람 도서번호(ISBN)편

우리나라의 책들도 이제 국제표준도서번호를 갖게 되었습니다! 도서관진흥법과 그 부속 법령에 의하여 제도의 도입이 입법화된 후, 국립중앙도서관에서는 그 성공적인 국내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왔습니다.

1991 김세중 조각상 수상 작가전 도서관과 조각의 만남

이제 우리 국립중앙도서관은 결코 작은 모습이 아닙니다. 일제 강점기에 만들어져 해방을 맞아 크게 그 체제를 변혁한 이래 지금까지 우리 도서관은 장서, 건물, 이용하는 사람들이나 운영하는 사람들 등에서 적지않은 발전을 거듭해왔다. 작년 문화부의 신설에 맞춰 올해엔 도서관 업무가 교육부에서 문화부로 이관되었다.

1995 국립중앙도서관의 기능과 책임

광복 이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국립중앙도서관은 외국과의 문헌정보 교류를 확대하고, 국내 도서관 발전의 중추적 역할을 다하는데 노력해왔습니다. 앞으로는 국립중앙도서관이 중심이 되어 도서관전산망을 전국적으로 확충하여 화상정보서비스 등 첨단장비를 이용한 양질의 정보를 국내외에 널리 제공하는데 역점을 둘 계획입니다.

2001 온라인저작물, 도서관은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세미나 자료집)

디지털 세계는 본질적으로 네트워크 세계입니다. 국립중앙도서관은 네트워크 상에 그냥 놓아두면 사라져버리는 전자정보를 어떻게 수집하여 보존하고 이용에 제공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2011 국립중앙도서관 장서개발정책

새로운「국립중앙도서관 장서개발정책」은 기존의 국가장서 개발정책을 기반으로 하여 도서관자료의 수집범위를 인쇄매체와 디지털매체까지 확대하고, 도서관자료의 선정·수집에서 보존·제적(폐기)까지 포괄하는 도서관 장서관리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담아 2011년 1월 12일에 「국립중앙도서관 장서개발정책」을 공식 발표하고 **전체 도서관간 도서관 자료 공유를 실현하기 위하여 책자로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2020 옛책 속의 그림 이야기

국립중앙도서관은 소장된 고문헌 28만여 책(점)의 보존과 이용 활성화를 동시에 이루기 위해 **도서관 누리집에서 원문 이미지의 서비스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왔습니다.**

「관보」 창간호 초대 관장 및 부관장 기고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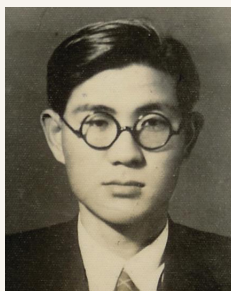
창간사

초대도서관장 이 재 욱

해방 조선에 있어서 문화운동이 수일 치열해 감은 바야흐로 탄생하라는 행복 조선을 위해서 가장 경하할 현상의 하나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그리고 우리 배달 겨레 8할이 문맹이라는 현실에 빛우어(비추어) 그것은 당연한 추세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따라서 우리들도 성심성의로 이 조수(潮水, 흐름)에 합류하려고 힘쓰고 있다.

다시말하면 우리들은 거년 10월 15일에 우리 신조선에 있어서의 유일의 국립도서관으로서 재출발한 이래 가위 주야를 분간치 않고 전지전력을 다해서 그 재건에 힘써 왔는데 20만 이상의 소개(疎開, 전쟁 등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안전한 곳으로 이동) 도서의 반래(搬來, 옮겨옴)를 완성한 것은 그 일례이다.

물론 우리들은 우리 도서관의(도서관이) 가지는바 사명에 빛우어(비추어) 10월 15일부터 새로운 의도하에 개관했든(개관했던) 것이다. 이래 나날이 열람자(원문은 閱覽子이나 閱覽者임)의 격증을 보고있는터인데 현재는 매일 6백명 이상의 진지한 독서인을 송영(送迎, 보내고 맞이함)하고 있다. 진지건국 도상에 있어서의 가장 즐거운 현실의 하나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우리는 지금 허다한 기획과 적지아니한 곤란을 갖고(가지고) 있으며 또 이러한 기획이 모든 곤란을 잘 극복한 후 독서자(讀書子 실은 讀書者)들의 행복을 위해서 성취됨을 볼 때에 우리 인생으로서 가장 즐거움을 느기는(느끼는) 것을 우리들은 잘 알고 있는 때문이다. 우리들의 안중에는 명예도 없고 지위도 없고 또는 안락도 없다. 다만 좋은 문헌을 수집보존해서 일반인사에게 이용시키는 것을 최상의 희열로 삼고 있는 때문이다. 이 소보(작은 관보)는 우리들이 여러분과의 연락을 위해서 세상에 내어 보내는 그것이다. 그러나 현 단계에 있어서의 여러 가지 부득이한 사정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빈약한 것이 되고 보니 그 실(사실)인즉 조금 부끄러움을 느기는(느끼는) 바이다. 우리들이 맡고 있는 우리도서관은 즉 여러분의 그것이며 우리들이 수호하고 있는 모든 문화재는 즉 여러분의 그것인 만큼 우리들은 언제나 여러분의 이용과 지도연락을 바라마지 안는다.(않는다) 끝으로 여러분의 이용 지도 및 편달을 바라며 동시에 우리들은 전지전력을 다해서 조금이라도 훌륭한 문화의 전당을 만들기를 여러분에게 맹서(맹세)하야마지 안는다.(않는다)



관보를 내면서

초대부관장 박 봉 석

3월 1일! 뜻깊은 이 기념일을 기하여 관보 제1호를 내게 됨은 거듭 기쁜 일이 아닐 수 없다. 전총독부도서관시대에 문헌보국이란 관보가 호화판으로 사계에 자랑하였지만 지금 우리는 인쇄관계로 부득이 등사판으로 수엽(몇장)의 관보를 세상에 내게 되나 그러나 미구(멀지 않아)에 그네들 보담 손색이 없이 상재하고자(출판하고자) 한다.

회고하여 보면(회고해 보면) 감개가 무량하다. 해방 후 전총독부도서관 직원 중 우리 직원은 불과 10여인 밖에 되지 아니하였으나 위직원(일본인 직원)과 투쟁을 하면서 장서 35만 권을 주야로 사수하고 일방건국 문헌 수집에 만전을 다하여 노력하였다.

그리하여 미군의(미국 군인이) 입경한 후(서울로 들어온 후) 10월 5일에 일본 직원 전부를 파면하고 <국립도서관>이란 새 간판을 걸고 우리 손으로 개관 준비에 착수한지 불과 10일 후 동 15일에 개관하게 된 것이다. 그동안 일인(일본인)이 반년간 애써 소개(疎開, 전쟁 등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안전한 곳으로 이동)한 도서 18만 권을 미군의 원조하에 관원의 헌신적 노력으로 단시일에 완전히 복귀하였고 또 그네들이 소위 비본(祕本)이라 하여 일반에게 열람을 금지하였던(하였던) 조선역사 및 사상관계 서적과 식민지 정책의 비밀 도서 등 1만여 권도 완전히 접수하여 방금 정리중임으로 3월 중순에는 우리 민족과 같이 이 도서도 해방될 것이다. 그리고 직장에서 근무하는 일반독서인을 위하여 2월 1일부터 일요일 및 경축일도 개관하여 연중무휴주의로 매진중이다. 이상과 같이 조선문화의 전당으로 새로 발족한 본관의 모든 사업이 잘 진척됨은 관계당국의 깊은 이해로 된 것은 물론이다.

그리고 또 관내미화공사와 도서관학교설립에 대하여는 더욱더 말할 것도 없다. 삼가 제씨에게(모든분들에게) 감사를 드리는 바다.

국립도서관 제정: 독서의 노래

마음의 등불

310
국립중앙도서관제정
"독서의 노래"

마음의 등불

박 문 월 작사
나 대 영 작곡

홍점계 (M.M.♩=100)

mf

책을 틀면 마음이 저절로 즐겁고
위대 한 스승이 따로 있으랴
새 시대의 새로운 지식의 문을

mf

책을 속에 서기 뽐이 샘 솟아 오르네
읽고 읽고 생각하면 참된 길 열리네
꾸준히 읽어서 열이 져서 히자

아는 것이 힘이다, 에나지들이나
아는 것이 힘이다, 에나지들이나
아는 것이 힘이다, 오늘-날-에도

국민의 독서 생활화 및 도서관주간 홍보를 위해 1971년에 보급한
국립중앙도서관 제정 독서 노래이다. (출처: 국립중앙도서관사, 1973)

311

독서로서 갈고가는 생활의 지혜
독서로서 찾아가는 진리의 오솔길
독서로서 님아보다 앞서나가자

씩씩하게

충은책 등불삼아 앞길밝히며
충은책 등불삼아 앞길밝히며
충은책 등불삼아 앞길밝히며

이룩하자 밝은사회 알찬인격
이룩하자 밝은사회 알찬인격
이룩하자 밝은사회 알찬인격



국립중앙도서관 개관 75주년 기념 온라인특별전

도서관, 시대를 걷다



문화체육관광부
국립중앙도서관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201 국립중앙도서관
전화: (02) 590-0774 팩스: (02) 590-0546